

| 2014년 주님의교회 표어 |

주여, 나를 (롬 5:10)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함글함글

즐거워 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_ 롬 12:15

| 오늘의 말씀 |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 2:10

2014년 5월 11일 주일 제 334호

발행인 : 박원호

| 편집인 : 김학원

|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 02-416-5181~2) | 편집 : 함글함글팀

주님의교회 홈페이지

www.pcltv.org



미안하다는 말밖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모두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2014년 특집 I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평화의 삶 위한 이 한권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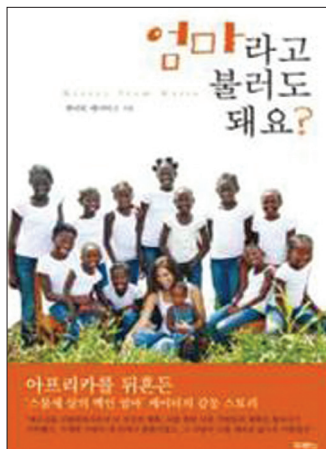
> 함글함글에서는 2014년 연간특집으로, 각자의 삶에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려 애쓰고 고민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다양한 형식(간증, 수필, 논설, 독후감, 여행기, 서간문 등)으로 hamletter@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신겠습니다. **함글함글**

열네 명 아이 입양한 열아홉 살 소녀 이야기

“

모든 것에 부족한 것이 없던
미국의 유복한 집안의 딸이
우간다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열아홉 살에 열네 명
우간다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다
삶의 순간순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자
그 속에 평화의 삶이 보인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케이티 데이비스 저, 정성목 역, 두란노, 2012

평화에 관련된 책을 소개하려 하는데 문득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이 떠올랐다. 신학적인 책도 아니고 평화에 대한 정의나 논의와 관련된 책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 책이 떠오른 것은 이 책의 주인공인 케이티가 거창하지 않아도 진지하게 자신의 삶에서 평화의 도구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삶으로 말하는 평화의 삶,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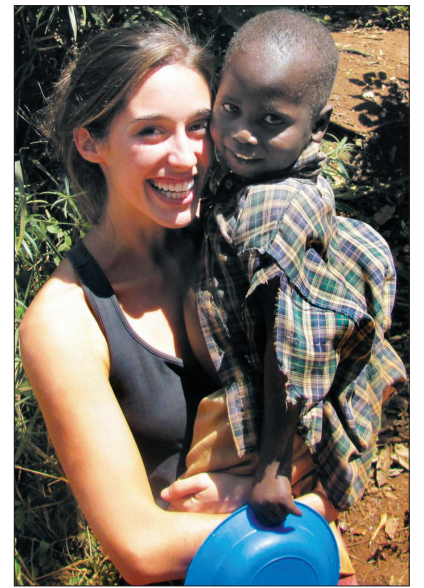
케이티는 미국 중상류층 신앙의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있는 여학생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우연히 떠났던 우간다 봉사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고 기꺼이 그 음성에 순종한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14명의 아이들을 입양하며 키우고, 그곳에서 ‘아마지마’(루간다어로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뜻)라는 비영리 사역 단체를 세워 그 지역 빈민과 아이들, 병자들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케이티의 삶 자체도 큰 도전이지만,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이것이 케이티의 삶의 비전이나 목표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케이티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꿈

꾸었다. 하지만 케이티는 자신의 삶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지 않고 겸손하게 순종한다. 물론 삶의 순간순간 누구나처럼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후회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준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평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거창한 비전이나 목표가 아니라 케이트처럼 삶의 순간순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평화의 도구가 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오늘 당신의 삶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자.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가?

청년의 때 삶의 비전과 목표를 두고 무엇인가를 이루해보려고 했다.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비전이 있었다. 그런데 언젠가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또한 나의 욕심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이후로 오히려 삶의 순간순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의 저자 케이티 데이비스.

성에 순종해 보는 것으로 나의 삶의 목표를 바꾼 적이 있다. 물론 쉽지 않고 지금도 실패한다. 하지만 어떻게든 내 삶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다보면 그분이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며 다시 한 번 케이티의 삶에서 들려오는 도전에 귀를 기울여본다.

장수현 목사

> ‘평화의 삶 위한 이 한권의 책’은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음에 도움이 될 좋은 책들을 선정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추천 도서도 환영합니다. **함글함글**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59

祭祀制度

(제사제도sacrifice system)

그러므로 형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로마서12:1)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舊約(구약)의 儀式(의식). 제사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하

나눔과의 거룩하고 신령한 교제, 속죄 등이다. 성경에서는 ‘犧牲(희생)’으로도 번역된다.

祭祀(제사)의 種類(종류)

구약의 제사로는 그 드리는 목적에 따라 燔祭(번제), 素祭(소제), 和羹祭(화목제), 贖罪祭(속죄제), 贖愆祭(속건제)등 五大祭祀(오대제사)가 있었다. 제사 방법에 따라서는 불에 태워드리는 火祭(화제), 제물을 위로 뜬 후에 드리는 桴祭(거제), 제물을 앞뒤로 흔든 후에 드리는 搖祭(요제), 포도주나 독주를 드리는 奠祭(전제)가 있었다.

오늘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로는 ①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피의 제사, ②죄인

임을 자각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겸손한 제사, ③주님이 베푸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믿음의 제사가 있다.

文字的(문자적)意味(의미)

★祭(제사 제): “고기”를 뜻하는 肉(고기 육, 몸 육)의 변형체 月(육달월)과 “손”을 뜻하는 又(또 우)와 “제기, 제단, 신”을 뜻하는 示(보일시, 귀신 기)를 합쳐 “희생의 고기를 손으로 다듬어 제단에 올리고 제사한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祀(제사 사): “제기, 제단, 신을 뜻하는 示(보일시, 귀신 기)”에 “오전 10시 또는 동남쪽을 상징하는 巳(뱀 사, 地支 사)를 합쳐”신에게 오전 10시 동남쪽을 향하여 제

사한다”라는 글자를 만들었다.

★制(지을 제, 다듬을 제): “나무줄기를 뜻하는 朱(붉을 주, 줄기 주)에 붙어있는 가시(刀)”의 상형과 “도구, 무기를 상징하는 刀(칼도)의 변형체 𠂔(선 칼도 방)”을 합쳐 “나무줄기에 붙은 가시를 칼로 다듬어 집을 짓는다”는 의미가 되었다.

★度(법도 도, 헤아릴 탁): ““많을을 상징하는 庶(여러 서)”의 획 줄임 글자에 “손”을 뜻하는 又(또 우)를 결합하여 “많은 숫자를 손으로 헤아릴 때는 셈하는 법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었다.

함글함글

2014년 부활절, 생명의 부활 기리다

부활절을 앞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2014년 주님의교회 부활절 행사의 의미는 더욱 깊었다. 박원호 담임목사는 부활절 메시지에서 “깊은 눈물 가운데 맞는 부활절입니다. 자식 잃은 라헬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부활절입니다.”라면서 세상의 아픔을 함께 하는 부활절임을 고백했다. 주님과 함께 한 부활절 행사 간증을 함께 나눈다.

신구 연기자 조합이 돋보여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깊이 느끼며 부활절 예배드라마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부족한 우리들의 정성을 귀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매년 참여하며 매년 회개하며 낮아지게 하시고 치유해 주신 은혜에 감격합니다. 연출과 극본을 써주신 문규호 전도사님과 고윤화 사모님께서 인내와 사랑으로 지도를 해 주셨고, 연습을 할 때마다 예배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의상팀과 무대 설치와 소품 등 말없이 수고를 해주신 귀한 손길들 주님이 보충해 주셨습니다. 1월 말부터 연습을 시작한 연기팀들, 대본을 읽으며 몸동작과 노래 연습에 열중한 모든 여성 교우님들, 직장일이 바빠도 인원이 부족하여 1인 3~4역을 맡으며 수고해 주신 남자 교우님들, 기존에 연기해 주셨던 분들과 금년에 새로 참석해주신 분들의 조합이 신선함 융화가 더욱 은혜로웠으며 청년과 어린이들의 동참이 예배드라마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폐제찬양을 해주신 주님의교회 모든 성가대와 주오챔버의 협력으로 예배드라마의 감동이 부활의 아침에 은은함을 더욱 깊게 해주셨습니다.

쉽지 않았던 연습 기간 중에 많은 지적을 받았던 대사와 몸동작 등이 부활절 본 예배 드라마 때는 어찌 그렇게 잘하던지 예배드라마 내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감격하였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가롯 유다 역할을 맡기신 전도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하며 성경을 읽고 자료를 찾아보며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고민 할 때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배드라마를 마치고 예배드라마팀 모두는 교우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부활의 감격과 성령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많이 부족하였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저희들은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오늘도 기도드립니다.

손경숙 권사



올해 부활절 예배드라마 “평화의 왕”은 아리마대 예수의 눈으로 화생과 섬김을 통해서 평화의 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삶을 조명했다. 부활주일 1, 2부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3부는 이웃초청 예배로 드러졌다.



4월 23일 저녁 7시 30분, 부활절 기념음악회가 펼쳐졌다. 모차르트의 레퀴엠과 헨델의 메시아가 시온찬양대와 세종대학교 심포니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펼쳐졌고, 세종대학교 콘서트콰이어가 찬조 출연했다.

교회용어, 이것만은 고치자 > 그리스도인이 쓰기에 바람직하지 못한 용어 편 2

신주(神主)모시듯 한다. 신주란 사당 등에 모시어 두는 죽은 사람의 위패를 말하는데 글자 그대로 죽은 사람을 신으로 받드는 민간 신앙에서 온 말로 몹시 귀하게 여기어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다루거나 간직하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신주 모시듯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급적 이런 말은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명당(明堂) 자리 명당이란 민간 신앙의 풍수지리사상에서 나온 것으로 후손에게 장차 큰 복을 가져다 준다는 빛자리나 집터를 말하는데 이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어긋남으로 쓰지 않아야 된다. 예를 들어 ‘여기는 정말 명당자리다’와 같은 말을 쓰는 것은 피해야 한다.

도깨비 장난 민간 신앙에서 도깨비란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한 잡된 귀신의 하나인데 이 도깨비는 비상한 힘과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홀리기도 하고 짓궂은 장난이나 심술궂은 짓을 많이 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 도깨비와 관련된 ‘도깨비 장난’, ‘도깨비 짓’, ‘도깨비 불’과 같은 허무 맹랑한 술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일진(日辰) 날의 간지(干支)를 말하는데 이에 따라 그 날 그 날의 운세가 있다고 믿고 있다. 용례로 ‘일진이 나빠서’, ‘일진이 사나워서’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피해야 될 말이다.

살(煞) 민간 신앙에서 살이란 사람을 해치거나 물건을 깨뜨리는 모질고 독한 귀신의 기운을 말한다. ‘살이 낀다’, ‘살을 쏜다’, ‘살이 내린다’와 같은 말들을 우리는 쓰지 말아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 / 함글함글 정리

섬기는 손 5



매월 첫째 주 성찬식 위해
전날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
5,000개의 떡, 5,000개의 잔
90개의 세트,
주님의 살과 피를 준비하는
정결한 섬김의 손.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실 분은 이준숙 권사(010-8974-9959)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함글함글

아직 요나였음을 고백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를 크신 사랑으로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사 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부활절 예배 드라마를 3년째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본디오 빌라도, 두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나만을 위한 하나님을 찾던 요나, 이번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회사 일이 바빠서 연습도 많이 못하는데 갑자기 맡은 배역이 급상승하여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 역을 어떻게...” 한편 마음속으로는 “내가 언제 또 예수님 역을 할 수 있을까”하는 세상적인 욕심도 생겼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열심히 대사를 외우고 연습을 하였지만 결과는 실망과 낙심뿐이었습니다. 목상을 하며 대사를 외우고 연습 시간마다 함께 기도하며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한 마음은 늘, 그대로였습니다.

과연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 니고데모, 38년 된 병자,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주님께 물어 보았습

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은 저에게도 찾아 오셨습니다. 대사가 외워지고 동선도 자유로워져 마음에 부담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겐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모진 핍박과 고통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할 때는 저의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요즘 지난 예배 드라마 대사들을 돌이켜 봅니다.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본디오 빌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저의 뜻대로 살고 있는 요나였음을 고백 합니다.

아직도 죄 많고 어리석은 저를 부활절 예배 드라마를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 저에게 참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평화를 내년 부활절까지 이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박형규 집사

2030 예수친구사역 개강예배

청년부에 이어 예수님 친구되는 긴 여행 시작



4월 13일 첫 모임을 가진 2030 커플그룹 예수친구사역

그동안 장년을 대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던 예수친구사역을 청년부에 이어 2030커플그룹에서도 시작했다.

2014년 4월13일 주일 오후 1시, 1층 제3집회실에서 그 첫 모임이 진행되었다. 예수친구사역은 예수님의 참 친구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날 15가정, 30여 명의 교구식구들이 박원호 담임목사의 지도 하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진

실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 친구되기 위한 다짐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예배 후에는 먼저 이 길을 걸어온 예수친구사역 1기 수료생 5분의 인도에 따라 서로를 알아가는 교제의 시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나눔의 시간들을 가졌다.

2030 예수친구사역 모임은 사정에 따라 매달 첫째 주 또는 셋째 주에 정기적으로 갖게 될 예정이다.

문의: 정명원 전도사 (010-4568-9389)

함줄함줄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기독교의 역사 1

우리나라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한국에 온 첫 여의료선교사 애니 엘러스. 1887년 정신여학교를 시작했다.

1884년 9월 20일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 소속 의사 알렌이 제물포에 도착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다.

지금도 선교사들이 그렇듯 이들이

입국해서 한 선교사역은 의료와 교육이었다.

이미 1883년 원산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 ‘원산학사’가 세워져있었다. 관립학교로는 1886년 육영공원이었다. 그러나 양반자제를 위한 이 학교는 1894년 폐교되고 만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근대 학교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미북장로회 소속 선교사가 먼저 입국을 했지만, 학교를 먼저 시작한 것은 미북감리회였다. 미북감리회는 선교본부에서 이미 학교를 세울 계획과 재정을 가지고 입국했기 때문이었다.

선교사들이 입국해서 거주한 곳은 정동이었고, 학교도 이곳에 세웠다. 덕수궁 뒤편, 미공사관이 그곳에 있어서 치안에 유리했기 때문이었다.

미북감리회 소속 목사 아펜젤러는 입국하자마자 1885년 남학교인 배재학당을 시작했다. 미북감리회 소속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이 1886년 여학교인 이화학당을 시작했다. 학교 이름을 모두 고종이 하사했다.

반면에 미북장로회 소속 학교의 시작은 늦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적었다. 1886년 언더우드와 같은 정동에 ‘언더우드 학당’을 시작했다. 그리고 1887년 역시 정동에 미북장로회 소속 여의료선교사 애니 엘러스가 여학교를 시작했다. 당시는 ‘정동여학당’, 현재의 정신여자중 고등학교이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나라 근대교육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남존여비가 만연하던 시대에, 이미 성평등 의식이 보편화되어있던 서양 선교사들이 남, 여 학교를 동시에 세움으로써 남자는 물론, 여성에 대한 교육

이 근대로부터 함께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희천 정신여교 교감

> 주님의교회와 정신학원은 이 땅에 교회와 학원의 바람직한 협력모델을 이루어 왔습니다. 학원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곳이니, 주님의교회가 한 울타리 안에서 학원을 섬기게 된 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신학원은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이정표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좀 더 깊이 알기 위한 작은 연재를 시작합니다.

기꺼이 집필을 맡아주신 이희천 선생님은 한국 기독교사와 정신여학교의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습니다. 그동안 <정절과 신앙의 정신 120년>(2007), <우리나라에 온 첫 여 의료선교사 애니 엘러스>(2009),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 선교편지>(2014)를 펴냈으며, 지금은 <신문으로 보는 김마리아>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함줄함줄

제1회 주님의교회 통일선교학교

통일을 복음으로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양성

통일 선교에 대한 첫번째 프로그램

주님의교회에서 통일선교에 대한 첫 번째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인 “제1회 주님의교회 통일선교학교”를 5월 29일, 6월5일, 6월12일, 6월19일 (매주 목요일, 7:30)에 개최한다.

이 땅의 오랜 소망인 통일은 이제 막 연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하고 공유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계에서도 최근 들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깊어지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 왔다. 온누리교회에서는 북한선교학교를 운영하면서 북한에 대한 공부를 지속해왔으며, 영락교회에서는 북한 선교센터를 두어 통일을 준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모퉁이 돌선교회에서는 북한선교학교를 통해 선교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주님의교회에서 이제 첫 발을 떼는 통일선교학교는 이런 시대적 사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통일 역시 주님이 주신 소명임을 공감하고, 머지않은 장래에 다가올 통일을 복음적으로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설되었다.

각계의 통일 전문가 초청

이번 통일선교학교에는 특히 각계에서 활동하는 통일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청되었다.

첫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소명, 통일”의 강사인 임용석 목사는 한꿈교회 담임목사를 맡고 있으며, 북한학 교수이자 코스타 강사이다. 왜 통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인지

를 성경에 비추어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두번째 주제는 “독일통일, 한국교회에게 주는 교훈”으로, 독일이 통일 되는 순간 독일교회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던 백석대 신학과 주도홍 교수가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독일통일이 주는 역사적 교훈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교회의 역할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세번째 주제는 “북한선교의 현황과 한국교회의 과제”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가 맡는다. 우리민족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인 통일을 교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네번째 주제는 “새터민의 이해”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변호사로 오랜 경험이 있는 황용환 집사가 맡는다. 성도들에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님의교회 탈북청년 모임

특히 마지막 날에는 주님의교회에 나 오고 있는 탈북청년들을 통해 한국교회에 바라는 점 및 탈북민에 대한 자세 등 현실적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미 4년 전부터 주님의교회에서는 탈북청년들 모임이 매주일 11시에 진행되어 왔다. 지금은 10여 명의 대학생들과 직장인이 함께하며 나눔의 시간을 갖고, 청년부와 장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올해는 주님의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탈북청년이 처음으로 나왔으며, 탈북민 중 최초로 남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형제도 있어 기쁨을

제1회 주님의교회 통일선교학교



05/29 목	01/ 하나님의 소명, 통일	임용석 목사, 한꿈교회
06/05 목	02/ 독일통일, 한국교회에게 주는 교훈	주도홍 교수, 백석대
06/12 목	03/ 북한선교의 현황과 한국교회의 과제	김병로 교수, 서울대
06/19 목	04/ 새터민의 이해	황용환 집사, 주님의교회

일 시 5/29 - 6/19 매주 (목) 오후 7:30 - 9:30

장 소 1층 제3집회실

참가비 1만원

접 수 5/18, 5/25(주일) 1층 로비 (당일접수가능)

주 회 주님의교회 통일선교팀

문 의 이남경 010-8004-4768

함께 나눈 바 있다. 또한 매월 두 번씩 북한을 위한 토요기도회를 갖고 있기도 하다.

통일선교팀에서는 또한 하나원 사역을 통해, 매월 탈북여성들, 어린이들이 지내고 있는 안성과, 탈북남성이 있는 화천 하나원을 격월로 방문,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 통일선교학교 이후에는 7월경 Z국 비전트립이 예정되어 있다. Z국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느

끼며 선교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역의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이현식 집사는 “이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사랑 속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탈북 주민들의 빠른 정착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했다. 문의 이남경 집사(010-8004-4768).

이남경 집사/통일선교팀

로렘나무

세월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경건히 예배드리고 주차안내 봉사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의 참담한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는 어린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 생명과 탑승객을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 안전과 법규를 무

시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부도덕한 선박회사, 구조 매뉴얼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허둥대는 정부를 비난했지만,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탐욕스런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희생자 가족들이 처절한 슬픔을 딛고 일어서도록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금 새 삶을 향한 희망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차안내 봉사를 하는 오늘 하루도 모든 교우님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섬김에 충실하게 해주시고, 낮은 자세로 섬기게 하여주시고 티 없이 깨끗한 어린아이들과 같은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윤하중 안수집사

2014 어린이무지개잔치

“하나님의 꿈, 함께 하는 세상”

어린이 중심 행사로 5월 25일 열려

지난 5월 3일 예정되었던 전교인 무지개잔치가 세월호 애도에 따라 연기된 후, 교회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 12:15) 말씀에 따라, 무지개 잔치의 성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전교인이 아닌 어린이의 꿈을 나누는 잔치로 기획하여, 5월 25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세월호의 아픔 속에서 전 국민이 애도와 통회의 마음으로 지내는 가운데, 미래의 희망인 다음 세대를 위한 발전적인 공간은 필요하다”는 것에 교회 공동체가 공감했습니다. 이번 잔치는 그런 의미에서 어느 때처럼 잔치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꿈과 뜻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담당을 맡은 김정형 목사의 말이다.

이번 잔치의 목적은 “어린이들이 교회 속에서 즐겁고 사랑받고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하는 소통의 장,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나눔의 장, 하나님의 꿈으로 세상을 소망하는 화합의 장”을 만드는 데 있다.

소통과 나눔, 화합으로 생명 살림의 뜻 기러

“소통의 장”은 1, 2부 연합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부서별 연합예배를 드린다. 이때 부모들은 2부 예배에 참석하도록 한다. 소통의 장에서는 체조와 버블 공연, 한마음 비빔밥 나누기 등의 순서를 통해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도록 이끌게 된다.

“나눔의 장”은 크게 “생명나눔”, “평화나눔”, “소망나눔”으로 구성된다. “생명나눔”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귀중한 생명을 잃은 가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꽃 화분 만들기 및 숲 체험을 통해 생명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한다. “평화나눔”에서는 평화의 현장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관람하고, 평화를 만드는 여러 활동을 진행한다. “소망나눔”에서는 십자가 만들기, 믿음의 길 걷기 등으로 믿음의 세상을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합의 장”은 오후 1시부터 시작한다. 모든 나눔마당을 종료한 후, 다목적교육관 5층 강당으로 이동해서, “생명의 장”, “평화의 장”, “소망의 장”을 통해 기악 연주, 평화의 기도문 낭독, 가족 뮤지컬 감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장”에서 무지개잔치를 마무리하면서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축복한다.

이날은 정신학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차가 불가능하며, 무지개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교인들은 1, 3, 4부 예배에 참석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함글함글

신포도주 헌금 실로암 병원 전달



5월2일(금) 오전 8시 주님의교회 박원호 담임목사와 교역자 일동은 서울 강서구 소재 실로암 안과병원을 방문하고, 병원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박원호 담임목사는 이날, 신포도주헌금 7,487,610원을 개안수술비용 지원을 위해 병원에 전달했다. 신포도주 헌금은 4월 18일 성금요예배시에 전성도들의 금식을 통한 금식헌금으로 봉헌된 기금이다.

함글함글

알림

- ▶ 음악분과위원회 산하 미시오데 이(Missio Dei) 선교찬양대의 찬양이 4월 27일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있었다.
- ▶ 청년 예친사 2단계인 예비리더 교육훈련 프로그램(LETS) 8기 수료식이 4월 27일(주일) 오후에 있었다.
- ▶ 주님의교회 25년사가 4월 20일과 27일 겨자씨 인도자 및 교인들에게 배포되었다. 아직 25년사를 받지 못한 교우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다.
- ▶ 새가족 양육수료자 환영식이 4월 27일(주일) 오후에 지하식당에서 개최되었다.

교회사역일정

- | | |
|----------------|----------------|
| 5.11(주): 어버이주일 | 5.18(주): 장애인주일 |
| 5.12(월): 정기당회 | 5.25(주): 무지개잔치 |

함글함글 카툰



주위를 둘러보세요.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거예요.



2014 어린이무지개잔치

“하나님의 꿈, 함께하는 세상”

2014. 5. 25. (주일) 오전 9:30 - 오후 2:30
주님의교회 및 정신학원 운동장

소통의 장

나눔의 장

화합의 장